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민들에게

여러분은 부와 명성을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하면서,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가 방금 제가 한 말에 반박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캐묻고 심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덕을 지니지 못하면서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를 나무랄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검토하는 것은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검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 ①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의 확실성을 의심해야 한다.
- ② 도덕 판단 기준이 상대적임을 알고 각자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
- ③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와 사회적 관습을 비판 없이 답습해야 한다.
- ④ 강한 자의 이익이 정의임을 깨닫고 세속적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지식이 곧 덕임을 자각하여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숙고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수원의 과일을 훔치는 일, 남의 말이나 소를 훔치는 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 이 모든 일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의(不義)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다. 이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兼愛]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천하의 해로움이다.

- ① 타국을 정복하려는 모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전쟁은 침략하는 국가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 ③ 강대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
- ④ 분별적 사랑[別愛]을 실천하여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 ⑤ 군사를 동원하는 공격 전쟁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는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욕망들 중 어떤 것은 자연적이고 어떤 것은 공허하다. 이러한 사실을 잘 관찰하는 것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해 준다. 우리는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날 것을 쾌락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을: 우리는 자연이 요구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 외적 원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행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갑: 고통은 인간에게 해가 되므로 언제나 회피해야 한다.
- ② 갑: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까지 제거해야 참된 쾌락을 얻는다.
- ③ 을: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④ 을: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으나 그 일에 대한 내 판단은 바꿀 수 있다.
- ⑤ 갑, 을: 자연적 욕구를 따르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4.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마음의 본체는 모든 것을 포용하니 원래 하나의 하늘이고, 마음의 이치는 끝이 없으니 원래 하나의 연못이다. 다만 사욕으로 하늘과 연못의 본체가 상실될 뿐이다. 모든 생각마다 양지를 발휘[致良知]하면 본체는 회복되어 하늘과 연못이 된다.

을: 마음은 영명하여 모든 앎[知]이 구비되어 있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다만 그 이치를 제대로 궁구(窮究)하지 못한 까닭에 앎이 극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앎을 극진히 이루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 보기 >

ㄱ. 갑: 앎과 행함[行]은 별개가 아니므로 선후가 있을 수 없다.
 ㄴ. 갑: 마음의 일[事]을 바로잡는 수양으로 양지를 형성해야 한다.
 ㄷ. 을: 앎을 지극히 하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ㄹ. 갑, 을: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여 천리(天理)를 보존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행위는 좋은 결과의 총합과 나쁜 결과의 총합의 차이에 따라서 더 유해하거나 덜 유해하다. 그러므로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쾌락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양을 감소시켜야 한다.</p> <p>을: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쾌락을 평가할 때 오직 수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므로 쾌락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별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ㄱ. A: 모든 쾌락의 가치는 양적 차이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ㄴ. B: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유용한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ㄷ. C: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ㄹ. C: 여러 쾌락을 경험한 자가 선호하는 쾌락이 질 높은 쾌락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그림은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현존재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사실로 인해 불안을 느끼지만, 이 불안을 용기 있게 받아들인다면 본래적 실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갑

인간은 죽음, 고통 등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 좌절을 외면하지 않고 한계 상황을 직시할 때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을

< 보기 >

- ㄱ. 갑: 실존의 상황 속에서 객관적 진리만을 추구해야 한다.
- ㄴ. 갑: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자신의 고유성을 자각하는 계기이다.
- ㄷ. 을: 초월자와의 단절을 추구할 때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 ㄹ. 갑, 을: 구체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주제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7.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본성대로만 한다면 누구나 선하게 될 수 있다. 사덕(四德)은 외부로부터 내게 스며든 것이 아니라 내게 본래부터 있던 것들인데, 다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할 뿐이다.
 을: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의와 법도는 성인(聖人)의 인위[僞]에서 나온 것이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① 갑: 본성을 확충하여 인의예지의 덕을 형성해야 한다.
- ② 갑: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
- ③ 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법(禮法)을 익혀야 한다.
- ④ 을: 성현(聖賢)의 가르침에 따라 본성을 보존해야 한다.
- ⑤ 갑, 을: 성인과 백성의 본성이 서로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지적 덕의 기원은 교육에 있으므로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도덕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얻어진다.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도덕적 덕은 먼저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절제 있는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 절제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상실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 보기 >

- ㄱ. 인간의 행위와 감정에 관계된 도덕적 덕과 악덕이 존재한다.
- ㄴ.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의 결과이다.
- ㄷ. 덕은 지적 덕과 도덕적 덕으로 구분되며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
- ㄹ. 도덕적 덕은 두 악덕 사이에서 산술적 중간을 따르는 중용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지만, 평등에서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이 불신으로 인해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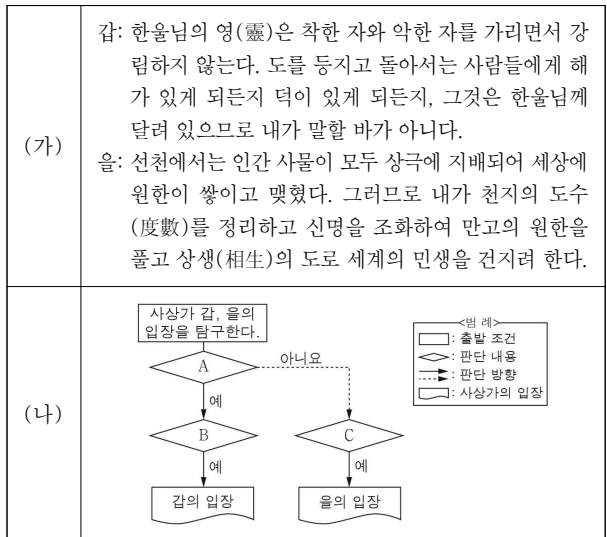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자유롭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과 예측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리 각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

< 보기 >

- ㄱ.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를 수립한다.
- ㄴ. 갑: 공동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부정의만이 존재한다.
- ㄷ. 을: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 ㄹ. 갑, 을: 주권은 계약 당사자인 국민에게 있으며 분할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현세에서 이루어야 하는가?
- ② B: 무한한 존재인 한울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인가?
- ③ B: 봉건적 신분 질서를 수호하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 ④ C: 서양 종교와 학문에 의존하여 상생의 도를 실현해야 하는가?
- ⑤ C: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온갖 원한을 풀어 없애야 하는가?

11.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대해 을이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단(四端)이 마음 밖의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정감이 라는 사실에서도 칠정(七情)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이(理)가 발현하되 기(氣)가 그것을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현하되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현하되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가 발현하되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다.”는 옳은 이치가 아니다. 기는 유위(有爲)하고 이는 무위(無爲)하므로 사단은 기가 발현하되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 ① 사단은 칠정의 일부이며 사단과 칠정의 발현하는 연원은 동일하다.
- ② 사단은 순수한 선(善)이고 칠정은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 ③ 사단은 본성[性]이고 칠정은 감정[情]이므로 서로 섞일 수 없다.
- ④ 사단과 칠정의 탁한 기질을 교정해야 도덕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사단은 사덕이 본성에 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이다.

12. 중세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신은 모든 자연적 존재를 창조하되, 결합까지 창조하지는 않았다. 지상의 나라에 속한 인간이 자진해서 부패하였으며, 자유 의지가 악용되었기에 인류의 불행이 지속되었다. 신은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이자, 완전한 선이다.
 을: 신은 자연의 필연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성과 의지를 통해 사물들이 존재하도록 창조했다. 신은 제1 원인이며, 이성적 피조물의 최종 목적은 본질에 따라 신을 보는 것이다.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자연법이다.

- ① 갑: 인간의 자유 의지는 신과 무관하게 내재한 본성적 능력이다.
- ② 갑: 선은 신으로부터 유래하며 악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서 기원한다.
- ③ 을: 신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증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④ 을: 인간은 이성을 발휘하여 영원법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⑤ 갑, 을: 인간은 도덕적 덕을 갖추는 것으로도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

13.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철인(哲人)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이나 통치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하지 않는 한, 나라의 나쁜 것들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을: 유토피아에서는 성인 남녀 모두가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며 정신적 오락을 즐긴다. 모두가 필요한 것을 공정하게 분배받으므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개인의 소유물은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빚장을 거는 일이 없다.

- ① 갑: 이상 사회에서는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를 담당한다.
- ② 갑: 이상 사회에서는 계층 간 역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③ 을: 이상 사회에서는 낭비를 막기 위해 문화생활이 금지된다.
- ④ 을: 이상 사회에서는 필요가 아닌 능력에 따라 재화가 분배된다.
- ⑤ 갑, 을: 이상 사회에서는 누구도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14.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또한 의미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예정인 대표자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지배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공적 심의가 반드시 기능해야만 합니다. 시민이 정치적 문제를 심의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지지 근거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시민은 합당한 정치적 정권의 틀 내에서 심의할 때 공적 이성에 가담하게 됩니다.



갑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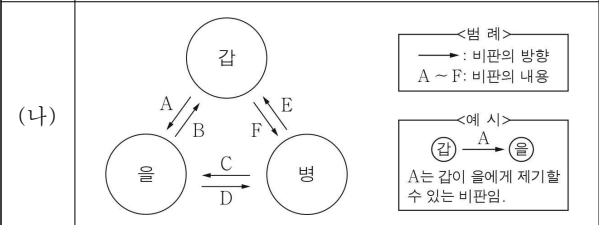
< 보기 >

ㄱ. 갑: 민주주의는 정치가가 권력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제도이다.
 ㄴ. 을: 시민은 공적 심의를 통해 자신의 지지 근거를 수정할 수 있다.
 ㄷ. 을: 시민의 활발한 공적 심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공간이 된다.
 ㄹ. 갑, 을: 시민은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보이지 않는 손은 삶의 필수품들을 거의 동등하게 분할하고, 부(富)를 가진 이들은 결코 본인들이 의도하거나 인지함이 없이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킨다.
 을: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해야만 사유 재산의 철폐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진을케 해야 한다.
 병: 자유 없이 사회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오직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 ① A, F: 개인의 자비심이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원천임을 간과한다.
- ② B: 분업을 통한 생산력 증대가 계급 간 연대의 출발임을 간과한다.
- ③ C: 공유제의 틀 아래 일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사회주의의 이상을 민주적 수단을 통해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E: 시장은 국가의 개입이 없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간과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윗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임금이나 제후가 무위(無爲)를 지키면 백성이 저절로 바뀌고 욕심을 내지 않아 순박하게 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없으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을: 백성을 법령으로 지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법망을 벗어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백성을 덕(德)으로 지도하고 예(禮)로써 다스리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 바르게 된다. 백성이 인(仁)에 뜻을 두게 되면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 ① 법률과 형벌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② 덕으로써 인도하는 다스림을 통해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가?
- ③ 분별적 지혜를 쌓아 인위적인 다스림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④ 예악(禮樂)을 통한 다스림으로 인륜(人倫)을 실현해야 하는가?
- ⑤ 무위의 다스림으로 문명의 발달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17.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안에 온전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빛난다. 유용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을: 이성만 정념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정보들을 전해줄 수 있을 뿐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는 결코 어떤 직무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① 갑: 행복 증진에 유용한 모든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② 갑: 선의지는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다.
- ③ 을: 덕과 악덕은 도덕감을 통해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 ④ 을: 이성은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를 제공한다.
- ⑤ 갑, 을: 도덕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승인에 의해 결정된다.

1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늘은 인간에게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능 [自主之權]을 부여하였으니,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싶으면 악을 행할 수 있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 권능이 자신에게 있으니 금수(禽獸)가 정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실제로 자기의 공이 되고 악을 행하면 진실로 자기의 죄가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지 이른바 본성[性]이 아닙니다.



< 보기 >

ㄱ. 선악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욕구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ㄴ. 인간은 측은지심의 실천을 통해 인(仁)의 덕을 획득해야 한다.
 ㄷ.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嗜好)를 지니고 있다.
 ㄹ.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天理]이자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불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여러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공(空)이라고 하며, 이것은 임시로 붙인 이름이고, 또한 그것을 중도(中道)라고도 한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멸(生滅)은 없다. 그렇다면 사성제(四聖諦)의 진리도 있을 수 없다.
 을: 오식(五識)이 연(緣)에 따라 일어나는데, 모두 함께 작용하기도 하고 각각 작용하기도 한다. 이 모든 의식[識]이 전변해서 분별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뉜다. 이것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이것과 저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으니 일체가 유식(唯識)이다.

< 보기 >

ㄱ. 갑: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중도를 수행해야 한다.
 ㄴ. 갑: 무아(無我)를 깨달아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ㄷ. 을: 마음 안의 고유한 실체를 파악해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ㄹ. 갑, 을: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므로 자성(自性)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이성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기는 활동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장 유익한 삶이란 가능한 한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삶이며, 이를 통해서만 인간은 지복(至福)에 이를 수 있다. 지복이란 신의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일 뿐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의 최고선은 유일한 실체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		✓	
인간은 인격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	✓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			✓	✓
인간은 자유 의지를 발휘할수록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